



구약의 노비 해방법과 조선 후기 노비 현상

정 중호 | 계명대

1. 서론

오경의 노비 해방법(출 21:2-11; 신 15:12-18; 레 25:39-46)을 읽는 독자는 과연 이러한 법이 고대 이스라엘과 유다 사회에서 준수되고 실행되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한다.¹⁾ 그러나 성경에는 이러한 법이 준수되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주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드기야 왕 시대에 노비를 방면하려고 하였지만 풀어준 노비를 다시 되돌리는 일이 일어나 실패한 경우(렘 34:8-16)만 나타나기 때문에 노비 해방법은 현실에서는 실행되기 힘들고 이상적인 목표로서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만 여겨지고 있다.²⁾

1) 성경에는 '노예,' '노비,' '종' 등의 다양한 용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종'이 가장 보편적으로 번역되어 있고 그 다음 '노비'로 번역되어있다(16회). 이 용어 가운데 '노예'로 번역된 예는 가장 드물었다(8회). '종'은 노예를 가리킬 때도 있지만 신하를 가리킬 때도 있고 자기를 낮추어 이야기 할 때 사용되는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 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성경 번역 상 '노비'라는 용어가 자주 나타나고 한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기에 '노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노비 해방이 법전의 형태인 노비 해방법으로 나타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준수할 가능성이 있고 이 법에 따라 살아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이다.

노비 해방법이 실현 가능한 법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권이나 신적인 권위를 논하기보다 노비제도를 경제적인 문제로 풀어볼 필요가 있다.³⁾ 왜냐하면 노비의 발생과 유지에는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노비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라는 점을 성경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신명기 15장에는 노비를 해방시킬 때 빈손으로 내 보내지 말고 양과 곡식과 포도주를 후하게 주라고 하였다(신 15:13-14). 노비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살아갈 방법이 없다면 또 다시 노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명령한 것이다.

그리고 엘리사 설화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발견할 수 있다. 선지자의 아내 중 한 과부가 빚을 갚지 못해 아이들이 노비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호소할 때 엘리사는 기적을 일으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또한 덧붙여서 그 이후에도 생활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기름을 제공하였다(왕하 4:1-7). 만일 생활비가 없으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또 다시 빚을 얻어야 하고 또 다시 아이들이 채무노비로 끌려가는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엘리사가 넉넉하게 기름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노비 문제는 단순히 노비에게 자유를 주어 해방시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시는 노비가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인 경제적인 면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노비를 경제적 시각에서 분석한 글래스(Zipporah G. Glass)는 신명기 15장의 노

2) 최근의 노비 해방법에 관한 연구는 주로 다양한 본문 간의 관계와 작성 연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 법의 실현성 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을 하지 않고 있다. M. Leuchter, "Manumission Laws in Leviticus and Deuteronomy: The Jeremiah Connection," *JBL* 127 (2008), 635-653; B. M. Levinson, "The Birth of the Lemma: The Restrictive Reinterpretation of the Covenant Code's Manumission Law by the Holiness Code (Leviticus 25: 44-46)," *JBL* 124 (2005), 617-639. J. Van Seters, "Law of Hebrew Slave: A Continuing Debate," *ZAW* 119 (2007), 169-183.

3) 인권에 주목하며 노비 해방법을 연구한 최근의 논문으로 Daisy Yulin Tsa의 박사학위 논문을 들 수 있다; Daisy Yulin Tsa, "Human rights in Deuteronomy: with special focus on slave laws," Ph. D. Dissertation, Trinity International University, 2011.

비 해방법이 이상적이며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고 도시 지주와 왕실의 실리를 추구한 결과이며 충분히 준수될 수 있는 법이라고 주장하였다.⁴⁾ 즉 노비 관리 비용이 노비 생산성보다 높을 때는 노비를 방면하고 임노동자를 활용하는 것이 노비 소유주의 이득이 되기 때문에 노비 해방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설명할 때 노비의 관리비용 외에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경우이다. 조선 중기인 16세기에 노비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여 거의 백성의 40~50%가 노비였다.⁵⁾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노비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여 노비의 비율이 10%이하로 떨어졌고 결국 1894년 갑오경장 때 노비 제도가 완전히 무너졌다. 조선 후기에 노비의 숫자가 격감해진 이유를 찾아보면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을 발견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경제적인 이유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 후기에 나타난 노비 격감 현상을 분석하여 그 원인을 밝히고 이와 연결하여 구약의 노비 해방법이 당시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실천 가능한 법이었음을 밝히는데 있다. 본 연구는 지역 간 연구이면서 동시에 학제 간 연구로서의 의의가 있다.

2. 조선 후기에 노비 수가 급격히 감소된 이유

16세기에 이르러 조선 시대 노비의 수가 최고조에 도달 하였으나 조선 말기에 는 노비의 숫자가 격감하면서 노비 소유주의 신분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치노비만 남게 되었다. 무슨 요인에 의해서 노비 인구가 이렇게 격감하게 되었

4) Zipporah G. Glass, "Land, slave labor and Law: Engaging ancient Israel's economy," *JSTOT* 91 (2000), 27-39. Glass는 페르시아 시대 유다의 사회 경제적 문제를 연구하여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Zipporah G. Glass, "Land, slave labor and Law: Viewing persian Yehud's economy through socio-economic modeling," Ph.D. Dissertation, Vanderbilt University, 2010.

5) 이정수/김희호, 「조선시대 노비와 토지 소유방식」 (경북대학교출판부, 2006), 184; 예를 들면 大邱府 호적을 검토한 결과 노비인구가 1690년 43%에서 1789년 16%로 감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우연/차명수, "조선 후기 노비 가격의 구조와 수준, 1678-1889," 「경제학연구」 제58집 제4호(2010), 105; 이영훈은 노비의 수를 다소 낮게 보았다. 이영훈, "한국사에 있어서 노비제의 추이와 성격," 「노비 농노 노예-예속민의 비교 사」(일조각, 1998), 365.

는가? 표면적으로 보면 신분제의 와해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신분제는 조선 중기나 말기 모두 유지 되었으며 말기에 부분적으로 약화된 면이 있었지만 여전히 굳건하게 유지되었다. 따라서 신분제 와해가 노비 인구 감소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 노비의 노동생산성 하락과 관리비용의 증가

오히려 노비를 신분제의 틀 속에서 보기보다 시장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노비 소유주들이 노비의 노동생산성을 높여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비 노동보다 임노동을 선호하였기 때문에 노비의 수요는 줄어들고 임노동자의 수는 증가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 시대 노비 가운데는 신분제를 떠받치는 노비가 있었다. 주로 노비 소유주의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제공하는 소위 솔거(率居)노비인데 그 숫자는 전체 노비 가운데 소수였으며 대부분의 노비는 농업과 같은 생산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비들이었다. 그리고 조선 말기에 감소된 노비도 주로 생산에 투입된 노비들이었다.

노비 소유주의 최대 관심사는 노비를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다. 노비 소유주의 이득, 즉 노비보유에 대한 한계편익(marginal benefit)은 노비의 한계 생산가치(value of marginal product) 즉 노비의 노동생산성에서 노비 관리비용(monitoring cost)을 뺀 값이다. 따라서 노비 소유주는 노비 관리비를 최소화하고 노비의 노동생산성을 극대화하려 한다. 이러한 요인이 노비의 수요 감소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노비 관리비용이란 노비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노비의 태업과 저항과 도망을 감시하는데 드는 비용을 가리킨다.

노비의 노동은 강제노동방식(pain incentive)의 노동이기에 단순한 노동형태인 농업노동에 주로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노비는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더 이상 열심히 일하지 않으려는 파레토 안정상태(pareto-stable)에 도달하게 된다.⁶⁾ 만일 노비의 생산성을 높이려고 더 강한 강제력을 동원하면 노비는 태업과 저항 혹은 도망 등의 방법을 통해 노비 관리비용을 증가시킨다.

6) S. Fenoaltea, "Slavery and Supervis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A Model," *Journal of Economic History* 44 (1984), 635-668.

따라서 노동생산성을 일정 이상 높이려면, 즉 노비 소유주의 한계편의 (marginal benefit)을 증진시키려면 강제노동방식보다 보상방식(reward incentive)을 택해야 한다. 결국 노비 노동으로는 높은 생산성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고 노동계약제를 통해 임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⁷⁾

노비와 같은 강제노동의 경우 노동생산성이 낮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조선에서 시행해왔던 요역제(徭役制)가 모립제(募立制)로 변경된 것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요역은 국가가 필요에 따라 노동력을 무상으로 징발하는 제도이다. 요역제가 모립제로 변경된 이유는 강제 동원된 부역인 요역제에 대한 저항이 심해졌고 동원된 역군들에 의해 진행되던 공사도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⁸⁾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은 노동력 징발 대신 현물이나 화폐로 대납하도록 하였으며 임노동자를 모집하여 임금을 지급하면서 공사를 진척시켰다. 이것이 조선이 17세기 초부터 시행했던 모립제였다.⁹⁾

조선 후기에는 노비가 도망하기 쉬운 환경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임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상공업과 수공업 그리고 광업과 시장과 연계된 광작농업이 발달하였기 때문이며 도시의 성장도 한 몫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노비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살주계와 검계를 통한 조직적 저항과 상전 살해, 사족 구타, 사족 부녀자 겁탈, 도적이거나 반란 참여 등이 대표적인 노비의 저항이었다.¹⁰⁾ 따라서 노비를 감시하는 관리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던 것이다.¹¹⁾

2) 유통과 시장 기능의 활성화

노비 수요가 감소하고 임노동자가 증가하는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은 유통이다.

7) 이정수/김희호, *윳글*, 188-189.

8) 윤용출, 「조선후기의 요역제와 고용노동」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116-128.

9) 윳글, 325; 본 저서에 대한 서평도 조선 후기에 출현한 임노동 문제 이해에 도움을 준다; 고동환, 「국가의 농민 지배방식의 변동을 통해 본 조선후기 사회성격의 해명-윤용출, 조선후기의 요역제와 고용노동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역사와 현실』, 30 (1998), 265-280.

10) 살주계와 검계는 숙종 때 조직된 노비의 비밀결사였다. 전형택, 「노비의 저항과 해방」, 『역사비평』, 34 (1996), 18-19.

11) 이정수/김희호, 「조선후기 노비가 변동의 원인-생산성과 노비관리비용을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23호 (2008), 199.

중국은 송대 이후 노비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획기적인 시장 경제의 발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¹²⁾ 시장경제의 발전이 어떻게 노비를 해방시키는 일을 촉진시킬 수 있는가? 노비의 가격이 시장에 실시간 반영되면 노비 가격이 낮아질 때, 즉 노비의 노동생산성보다 노비의 관리비용이 높아져 노비의 효용 가치가 떨어질 때 노비는 손쉽게 방매하거나 방면하게 되고 대신 빠르게 임노동체제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조선의 노비가격은 1690년 경 20석에서 2-3석으로 폭락하였다.¹³⁾ 그리고 1700년 대 초기에 비해 말기에는 절반으로 떨어졌고, 1800년대 후반에는 1/3 수준이 되었다.¹⁴⁾ 또한 19세기 말에는 노비가격이 거의 0에 근접했다. 노비가격이 0라는 것은 아무도 노비를 소유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비가격이 낮아짐과 동시에 노비의 수도 급감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노비의 숫자가 최고조에 도달한 조선 중기까지 일반 시장도 크게 발달하지 못하였고 노비시장도 발달하지 못하였다. 노비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양반이 노비를 매매한다는 것을 천한 상행위로 여겼기 때문이다.¹⁵⁾ 간혹 매매가 되는 경우는 양반 가문이 빈곤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었다.

이정수와 김희호는 조선후기 약 200년간의 노비가격 자료, 즉 노비매매 문서를 분석하여 노비 수의 급격한 감소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연구하였다. 그런데 1689년 화폐가 도입되어 유통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시장이 발달하면서 노비매매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 노비의 숫자는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¹⁶⁾ 화폐가 유통되고 시장이 활성화되었을 때 노비시장도 발달하였고 임노동시장도 활성화 되었다. 심지어 토지가 없는 양반도 임노동 시장에 나타나 노동을 매매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토지가 있는 자작농도 생계유지에 필요하다면 임노동 시장에 나타나기도 하였다.¹⁷⁾

따라서 노비의 숫자가 감소된 것은 정부 정책의 변화나 신분제의 와해와 같은

12) 이상국, "고려 정종 5년(1039) 賤者隨母之法의 제정과 그 의의," 『사림』 제34호 (2009), 90.

13) 이영훈/양동휴, "조선 노비제와 미국 흑인노예제: 비교사적 고찰," 『경제논집』 37-23 (1998), 324.

14) 이우연/차명수, 『윳글』, 121.

15) 이정수/김희호, 『윳글』(2006), 178.

16) 『윳글』, 215.

17) 『윳글』, 181.

요인도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시장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시장 최적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노비들이 임노동자로 대체된 경제적 요인이었다.

3) 풍부한 임노동자

이정수와 김희호는 17세기 이후 조선의 토지집중도와 노비제를 연결시켜 분석하여 “소농경영과 광작경영 형태 모두 시장 기능적으로 노비제를 해체하고 임노동시장을 촉진시켰다”고 결론을 내렸다.¹⁸⁾ 이러한 변화의 배후에는 이양법과 시비법 등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노동력이 절감되어 노비수요를 감소시킨 면도 일부 있었다. 그런데 소농경영이 노비제의 해체를 촉진시킨 것은 소농경영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 때문이었다. 즉 소작료와 각종 세금부담, 그리고 자연 재해에 직면하여 극복할 수 있는 위험회피 수단의 부족으로 인해 소농경영이 좌절되어 빈농화되고 유민화되어 임노동자로 전락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었다.¹⁹⁾

한편 광작경영, 즉 대농장의 경우는 노비의식의 성장으로 인한 노비의 도망, 태업, 저항이 일어나고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증가되었다. 반면에 시장에 저렴한 임금을 요구하는 임노동자는 풍부하기 때문에 지주들은 오히려 일시적이고 계절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임노동자를 선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²⁰⁾ 따라서 토지 소유 규모에 따라 노비 수가 감소했다기보다 저렴한 임금을 요구하는 임노동자가 풍부해진 시장 상황에 의해서 노비 수가 급격히 감소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여기서 발견하는 중요한 사실은 노비와 임노동이 조선시대와 같은 신분제 사회에서도 서로 대체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이다.²¹⁾

이러한 결론에 덧붙여 참조할 만한 것은 자매(自賣)노비의 매매비율이다. 자매노비는 빈곤이 극심할 때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스스로 자신을 팔아 노비가 되겠다는 사람을 가리킨다. 자매노비의 매매는 조선에서 1767년에 처음으로 나타나 19세기 후반에는 자매노비 매매건수가 전체 노비매매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율이

18) 윗글, 262.

19) 최윤오, “18,19세기 농업고용노동의 전개와 발달,” 『한국사연구』 77 (1992), 59-63.

20) 이정수/김희호, 윗글(2006), 262.

21) 윗글, 217-218.

급격히 증가하였다.²²⁾ 자매노비의 매매비율이 높을수록 노비가격은 하락하고 임노동자의 임금도 하락하였다. 이것은 자매노비가 노동시장에 많이 나타날수록 전체적인 노동자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노동자의 가격과 임금이 내려갔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노비의 가격은 급속히 낮아지면서 노비의 수가 감소되고 임노동자는 증가하게 된 것이다.²³⁾

임노동자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고공(雇工)’이다. 고공은 농업생산 등에 고용된 노동자이고 양반, 중서인, 양인, 천인 등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신분이며 5년 이상 장기 고용된 노동자로 호적에 등재된다. 그런데 이러한 장기 고공은 노비와 같이 18세기 중반 이후에는 숫자가 감소되며 여성화되고 연소화 되었다.²⁴⁾ 따라서 장기 고공은 출현한 임노동자를 신분제에 맞춘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거의 노비나 다름없는 신분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고공 가운데는 단기 고공이 있었고 계절 고공도 있었으며 ‘고공’이라는 단어는 ‘임노동자’라는 단어로 널리 활용되었다.²⁵⁾

국왕도 임노동자인 고공을 적극 활용하기를 권했다. 흥미로운 것은 임진왜란으로 파괴된 농업을 재건하기 위해 국왕 선조가 선전관 허전(許堧)으로 대작케 하여 ‘고공가(雇工歌)’를 작사하였다는 사실이다. ‘고공가’를 보면 자경농민이 고공(며슴) 2명을 거느리고 농사를 성실하게 지어 가산을 재건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한 이원익의 비평적인 ‘답가’도 있었다.

조선 후기 임노동자의 실상은 이 당시 출현했던 흥부전에도 나타난다. 임노동자인 흥부는 농사일 뿐 만 아니라 이엉 엮기, 명석 맺기, 나무 베기 역인(役人) 서기, 마철(馬鐵) 박기, 마당 쓸기, 물 걷기 등의 노동을 하여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²⁶⁾

임노동자들의 행동에 관해서는 ‘고지(雇只)관행’이라는 것도 있었다. 고지관행은 단체 청부 계약에 의한 고용노동 형태이다. 예를 들면 30여명의 임노동자들이

22) 이정수/김희호, “조선후기 노비매매 자료를 통해 본 노비의 사회,경제적 성격과 노비가의 변동,” 『한국민족문화』 31 (2008), 375-376.

23) 이정수/김희호, 『릿글』(2006), 214.

24) 이정수/김희호, “17-18세기 雇工의 노동성격에 대한 재해석,” 『경제사학』 제47호 (2009), 33.

25) 김용섭, 『역사의 오솔길을 가면서 - 해방시대 학자의 역사연구 역사강의』 (지식산업사, 2011), 330-341.

26) 송찬식, “조선후기 농업에 있어서의 廣作운동,” 『이해남박사회갑기념사학논총』 (일조각, 1970), 116.

지주와 단체계약을 맺고 논농사를 지어주면 지주가 임금을 지불하는 형태인데 보통 1-3월에 계약을 맺고 임금을 선불하는 형식이다.²⁷⁾ 이러한 관행은 임노동이 산발적이고 개인적인 행태로 나타날 뿐 만 아니라 조직적이고 단체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임노동시장이 상당히 발전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3. 구약의 노비 해방법

구약에는 계약법전(출 21:2-11), 신명기법전(신 15:12-18), 성결법전(레 25:39-46) 등에서 노비를 해방시키는 법이 나타난다. 그러나 노비제 전체를 혁파하는 내용이 아니라 ‘히브리 노비(형제)’만 해방시키는 법이다. 따라서 외국 노비는 제외되고 외국 노비는 상속될 수 있는 재산이며 외국 노비의 자녀는 계속 노비가 된다.

출애굽기 21장 2-11절과 신명기 15장 12-18절에서는 ‘히브리 노비’를 품꾼같이 대하고 6년 동안 기간이 경과하면 방면하여 자유를 주라고 하였다. 이러한 대우를 하는 근거를 출애굽에서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노비였던 히브리 인을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하였다(신 15:15; 레 25:55).²⁸⁾ 따라서 사람이 히브리 인을 노비로 삼을 수 없다는 뜻이다.

특히 신명기에서는 7년째 해방시킬 때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양 무리 중에서 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신 15:14) 후하게 주어서 보내라고 하였다. 이것은 노비의 실상이 경제 문제 특히 가난과 굶주림의 문제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비록 자유를 얻었다고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일 경우 또 다시 빚을 얻어야 하고 또 다시 채무노비로 전락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유를 택하지 않고 주인집에 계속 노비로 있는 것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신 15:16). 이러한 현상은 조선 시대에도 나타나는데 양인(良人)이 세금과 부역에 시달리다 못해 스스로 노비가 되겠다고 자원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양인이 노비의 처지를 부러워하는 경우라 볼 수 있다.

27) 김용섭, *유허*, 344-346.

28) 출애굽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출애굽 상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출애굽기의 편집상 21장이 출애굽의 노비 해방 정신을 나타내는 중요한 본문으로 볼 수 있다. 전정진, “출 21장 2-11절과 신 15장 12-18절에 나타난 종의 방면 법,” *구약논단*, 35집 (2010), 66.

노비 해방이 나타나는 신명기 15장과 예레미야 34장은 언뜻 보기에 ‘매매노비’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²⁹⁾ 왜냐하면 אִמְכָר(임마케르)를 ‘팔렸거든’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이다(신 15:12; 렘 34:14). 그러나 이 단어는 니팔 미완료형인데 재귀의 뜻이 있어 ‘스스로 팔았거든’으로 번역할 수 있다.³⁰⁾ 즉 매매로 구입한 노비가 아니라 빚을 갚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노비가 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신명기 15장과 예레미야 34장은 채무노비(debt slavery) 해방에 관한 것이다.³¹⁾ 출애굽기 21장도 채무노비에 관한 것이다. 「개역개정」에 ‘(히브리 종을) 사면’(출 21:2)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매매노비’로 오해하기 쉬운데 히브리어 קָנָה(카나)는 ‘획득하다(acquire)’가 기본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경우를 가리킨다. 그런데 ‘히브리 종’을 전쟁 상황이나 매매로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을 노비로 획득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비 해방에 관한 본문인 계약법전(출 21:2-11), 신명기 법전(신 15:12-18), 성결법전(레 25:39-46), 예레미야(렘 34:8-16) 등은 모두 채무노비에 관한 것이며 노비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임을 강하게 시사해준다.³²⁾

1) 노비 노동생산성 하락과 관리비 증가

히브리 노비를 품꾼같이 대하고 6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해방시키며 나갈 때는 생활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주라는 노비 해방법은 우선 신분제를 파괴시키는 법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의롭고 좋기는 하지만 참으로 이상적이고 노비를 파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대우하라는 비현실적인 ‘거룩한 말씀’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비 소유주가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을 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일어나기 힘든 사건이라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노비 해방법을 따를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 노비 소유주가 모든 것을 희

29) 예레미야의 기록(렘 34장)은 문체와 내용에 있어서 신명기 법(신 15장)에 의존하고 있다.

30) J. G. McConville, *Deuteronomy* (Leicester, Apollos, 2002), 262; ZB, LB, NIV, REB 등의 번역도 재귀의 뜻으로 번역함.

31) G. C. Chirichigno, *Debt-slavery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185.

32) J. Milgrom, *Leviticus 23-27* (New York: Doubleday, 2001), 221A.

생하고 손해보는 행동은 아님을 발견할 수 있다. 노비 소유주가 노비를 활용하는 목적은 자신의 이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노비의 노동생산성이 낮거나 노비를 관리하는 비용이 증대된다면 노비주의 수익은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노비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관리 비용을 절감하려 할 것이다.³³⁾

품꾼같이 대하라는 것은 인간적인 처우를 하라는 뜻도 있지만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노비로서 일하는 강제노동방식이 아니라 임노동자로서 일하는 보상방식을 택할 때 노비의 노동생산성은 향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6년이라는 시한을 정하고 나갈 때는 '넉넉하게 주는 선물'(신 15:13-14)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 충성하게 되고 당연히 열심히 일하게 되니 노비의 노동생산성은 향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함무라비 법에도 채무노비의 경우 3년 동안 일하면 4년째는 방면하도록 되어 있다.³⁴⁾

엄하게 부리지 말라(레 25:43)는 것은 노비의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노비가 불만을 품고 태업이나 저항 혹은 도망을 가게 되면 노비주의 손실은 막대하게 된다.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해 24시간 감시하고 관리하려면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자유롭게 노비를 활용하는 데도 지장을 주게 된다. 솔로몬 왕 시대에 시므이의 노비가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친 적이 있었다. 이 때 시므이는 직접 예루살렘에서 가드까지 가서 두 노비를 데려왔다(왕상 2:39-40). 이 때 누군가가 도망친 노비의 행방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다시 데려올 수 있었다. 이러한 노비 추쇄 과정에는 상당히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 수밖에 없다. 만일 품꾼같이 대한다면 그리고 노비가 자유와 보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충실히 일한다면 이러한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노비주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대농장을 경영하는 노비주가 도시에 떨어져 거주하면서 원격으로 농장을 경영하려할 때 노비의 자발적인 노동은 노비주에게 있어서 큰 이득을 주게 되고 덤으로 심리적인 안정감과 윤리적인 떳떳함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노비 해방법은 외국노비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따라서 신분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노비는 외국노비로 충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력가들에게는 큰 지장을 주지 않았다.

33) Zipporah G. Glass, *윳글*(2000), 27-28.

34) Hammurabi Codex, 117.

2) 유통과 시장 기능의 활성화

만일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유통이 활발하고 시장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었다면 노비가격은 실시간으로 반영되었을 것이고 임노동 시장도 형성되어 손쉽게 빠르게 노비 활용에서 임노동자 활용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노비 해방법의 역사적 상황 가운데 당시의 유통 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참여하는 주전 9-8세기의 국제무역은 해상무역의 강자인 페니키아를 중심으로 광역의 복합시장경제(complex market economy)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국제교역적인 네트워크는 앗수르 제국의 국제교역 망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유다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역 망이었다. 유다의 곡물은 앗수르까지 수출되었는데 앗수르 시장에서 유다의 단위로 곡물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그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³⁵⁾ 이스라엘과 유다는 두로와도 무역을 하였지만 아스겔론을 비롯한 블레셋의 무역항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무역에 동참하였다. 주전 7세기에는 유다와 블레셋이 하나의 광역 경제권을 형성할 만큼 국제무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였다.³⁶⁾

국제무역의 활성화로 이스라엘과 유다에서는 포도주와 올리브와 밀을 수출하였고 사치품과 군사물품을 수입하였다. 이러한 무역을 통해 왕실과 세력가들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농민들에게는 별 다른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³⁷⁾

국제무역의 발달과 더불어 이스라엘과 유다에도 상거래가 활발했는데 이것은 유다의 가정집에서 저울추가 많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³⁸⁾ 상거래의 활성화는 노비시장과 임노동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졌다. 국제적인 노비매매에 관한 것이지만 아모스는 노비매매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였다. 에돔으로 노비를 팔아넘긴 가사의 행위에 대해 책망한 것이다(암 1:6).³⁹⁾ 그리고 에돔으로 노비를 팔아넘긴 두로도 책망하였다. 그런데 두로의 경우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

35) ADD 148, quoted in M. Elat, "The Monarchy and the Development of Trade in Ancient Israel," in Edward Lipinski ed, *State and Temple Economy in the Ancient Near East*, (Louvain: Departement Orientalistik, 1979), 538.

36) 정중호, "주전 7세기 블레셋과 유다의 광역 경제권," 『구약논단』, 41집(2011), 180-200.

37) M. Elat, "Trade and Commerce," in *The Age of the Monarchies: Culture and Society*, ed. by B. Mazar (Jerusalem: Massada Press, 1979), 183-185.

38) Hayah Katz, "Commercial Activity in kingdoms of Judah and Israel," *Tel Aviv vol. 31*, no. 2 (2004), 268-277.

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암 1:9)고 표현한 것을 보아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에돔에 팔아넘긴 것을 질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노비매매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전도서의 기록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전 2:7). 특히 노비가 일상적으로 매매되고 있다는 것은 노비 해방법에도 포함되어 있다. 레위기 25장 42-51절의 노비 해방법과 노비 속량에 관한 본문에서 노비를 ‘팔다’와 ‘사다’라는 용어가 7회나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아 노비매매는 일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무역이 활성화되어 있고 일반적인 상거래가 활발한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노비매매도 활성화 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노비의 가격은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결정되며 필요하다면 빠르게 노비를 매도하거나 해방시키고 대신 임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시장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에 시장기능이 활성화 되었을 때 시장에 반영된 노비 가격의 하락으로 노비의 수는 감소하고 빠르게 임노동자를 활용한 방향으로 전환된 사례처럼 이스라엘과 유다에도 유사한 상황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3) 풍부한 임노동자

저렴한 임금의 임노동자가 많이 나타날 경우 지주는 노비보다 임노동자를 선호하게 된다. 구약에는 임노동자인 ‘폼꾼’의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출 12:45; 레 19:13; 22:10; 25:6, 40; 신 15:18; 24:14; 욥 7:1, 2; 14:6; 사 16:14; 19:10; 21:16; 말 3:5). 특히 폼꾼의 폼삿에 대해서 자주 나타나며 약속한 때에 폼삿을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고 질타하기도 한다;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폼꾼의 삿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라(레 19:13).

39) 에돔에는 구리광산이 있었으며, 에돔을 중개지로 하여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방면으로 노비를 매매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노비 수요가 많았다. Shalom M. Paul, *Amos: a commentary on the book of Amo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57.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삯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말 3:5).

팔레스타인에 임노동자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우선 이주자가 많기 때문이다. 지정학적인 위치상 국제적인 교통요충지이기 때문에 동서남북 사방에서 들어오는 이주자가 많았다. 그리고 강대국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의 격전지이기 때문에, 또한 강대국과 연결된 쿠데타가 많은 지역이기에 전쟁 피난민이 많았다. 이주자와 피난민인 경우 토지가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임노동자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시기인 주전 8세기 후반에 대규모로 예루살렘과 유다로 피난 온 피난민들은 임노동자로 생계를 꾸려갈 수밖에 없었다(사 4:2; 10:20; 33:1-24).⁴⁰⁾ 그리고 이들이 값싼 임노동자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기에 대농장 주주들이 노비보다 임노동자를 선호하게 되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올리브 농사를 지을 때 일 년 내내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올리브 나무를 재배하고 수확하는 것은 일 년 중 몇 달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화된 작물인 올리브만 재배하는 대농장의 경우 계절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노비를 일 년 내내 소유하여 유지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노비보다 임노동자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노비 수요가 줄어들어 시장에서 매매되는 노비의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노비의 숫자는 격감하게 될 것이다. 노비 소유자는 노비를 헐값이라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여기게 될 것이며, 매도가 불가능하다면 노비를 조건 없이 해방시키려 할 것이다.

계절적 임노동자 고용은 이스라엘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임노동자로 일하는 사례도 있다. 유다 노동자들이 에돔에 건너가 포도원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었다(사 63:1-6).

임노동자들 중 다수는 적은 면적의 토지를 소유한 가난한 농부이거나 토지가

40) J. H. Hayes and S. A. Irvine, *Isaiah: The Eighth-Century Prophet: His Times and His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87), 201.

없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빛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이었다. 특히 주전 9-8세기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수 임노동 시장에 나타났다.

주전 9세기부터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와 유다 왕 웃시야는 중앙집권적 군주체제를 강화하면서 명령경제(command economy)체제를 구축하였다.⁴¹⁾ 이러한 권력의 집중화는 세력가들의 독무대를 마련하였고 세력가들의 이익을 위해 농촌은 집약농업(agricultural intensification)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세력가들은 국제무역에서 교환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농민들이 생산하도록 유도하였다. 즉 지역적으로 특정한 작물을 집중적으로 재배하도록 배치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웃시야 왕의 농업 정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스텝지역에 망대를 건설하고 많은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이는 그가 대규모의 가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쉘펠라 지역과 평야지역에는 농부들을 (두었다). 그리고 산간 지대와 갈렐에는 포도원과 과수원 일꾼들을 배치하였다. (대하 26:10)

웃시야 왕은 초원지역에는 목축, 쉘펠라와 평야지역에는 밀을 중심으로 하는 곡물, 산간지대에는 포도와 과일나무를 재배하도록 지역특화 작물재배 정책을 시행하였던 것이다.⁴²⁾ 그런데 이러한 지역적 특화 농업정책이 농민들의 파산 위험을 증가시켰다.

팔레스틴 지역은 전쟁이 자주 일어나고 가뭄, 역병, 홍해 등으로 추수할 것이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었다. 따라서 농민들은 위험분산(risk spreading)을 위해 목축과 곡물재배와 과수재배를 통합적으로 경영하여 왔다.⁴³⁾ 그리고 곡물재배도 다양한 작물을 심어 흉작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명령경제에 의해서 특정 작물만 재배하면 자연재해가 닥칠 때 농민들은 대처할 힘이 없다.

홉킨스(David C. Hopkins)는 명령경제의 폐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41) Marvin L. Chaney, 우택주 외 역, 『농경사회 시각으로 바라본 성서 이스라엘 - 구약성서의 종교와 사회의 역사, 문학, 해석』 (한들출판사, 2007), 180.

42) Anson F. Rainey, "Wine from the Royal Vineyards," *BASOR* CCXLV (1982), 58-59.

43) 이러한 경제를 subsistence economy로 부른다. Bernhard Lang, "The social organization of peasant poverty in biblical israel," *JOT* 24 (1982), 49.

특정 작물의 수확을 체계적으로 증가시키면 단기간에 생산성과 효율성은 증가하지만, 이는 자연재해에 대한 저항력을 감소시켰다. 이전에 상대적으로 자급자족하던 농촌의 촌락은 점차적으로 중앙의 세력들과 그들이 운영하는 교환 네트워크에 의존하게 되었다.⁴⁴⁾

또한 주전 8세기 이스라엘에서 농민층이 파산하고 채무노비로 전락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농민이 토지와 유리되는 현상, 즉 토지를 팔 수 밖에 없고 토지를 빼앗기는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토지가 농민에서 유리되는 것은 세습 가능한 토지(patrimonial domain)였는데 군주가 토지를 징발하거나 점령해서 신하에게 봉록(俸祿)적 토지(prebendal domain)를 수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토지를 담보로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았을 때 토지를 압류했기 때문이다. 혹은 흉년으로 기근이 일어날 때 헐값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이다. 또 다른 방법은 세력가가 권력을 이용하여 토지를 징발하거나 부패한 사법권을 사용하여 강제로 토지를 빼앗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토지는 세력가들의 수중에 집중되었고 대토지화(latifundialization), 대농장으로 변모하게 되었다.⁴⁵⁾ 이러한 현상은 주전 8세기에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미 2:2)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사 5:8)

대토지를 소유하고 시장경제와 국제무역에 민감한 세력가들은 임대 자본주의(rent capitalism) 방식으로 농장을 운영하였다.⁴⁶⁾ 이들은 도심 지역에 거주하면서

44) David C. Hopkins, "The Dynamics of Agriculture in Monarchical Israel," in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1983 Seminar Papers*, ed. Kent Harold Richards (Chico, CA: Scholars Press, 1983), 197.

45) R. Coole, 우택주 역, 「아모스서의 형성과 신학」 (대한기독교서회, 2004), 52-54.

46) D. N. Premnath, "Latifundialization and Isaiah 5,8-10," *JOTF* 40 (1988), 51.

권력을 갖고 싶어 하였고 농민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수입을 얻고자 하였다. 임대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는 토지 소유권과 노동력은 분리되며, 농업 생산을 위한 요인들은 각기 분리되어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⁴⁷⁾ 따라서 농민들은 과중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도 지주들의 처분에 맡길 뿐이었다.

토지가 없는 농민과 토지가 있어도 특정작물만 재배해야 하고 위험회피 방안을 갖추지 못한 농민들은 흉년이 발생하거나 전쟁이 일어날 때 유일한 대책이라는 것이 빚을 내는 채무자가 되는 길이다. 그런데 빚은 높은 이자를 부과하기 때문에 빚을 모두 상환하거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추락하게 된다. 채무를 갚지 못하면 노비가 되기도 하고 임노동자가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주전 9-8세기부터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주자, 피난민, 채무자 등이 임노동자로 활동하면서 노동 시장에는 풍부한 임노동자가 출현하게 되었고 노비를 소유한 대지주들은 관리 비용이 들지 않고 짧은 기간에 적은 임금을 주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임노동자를 선호하게 된 것이다.

4. 결론

노비 해방법(출 21:2-11; 신 15:12-18; 레 25:39-46)은 파격적인 면이 있고, 노비 해방을 실제로 실시해서 실패한 경우(렘 34:8-16)가 있었기에 그 실행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조선 후기에 노비 수가 격감하면서 많은 노비들이 자유를 찾은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조선 후기에 나타난 노비 격감 현상을 분석하여 그 원인을 밝히고 이와 연결하여 구약의 노비 해방법이 당시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실천 가능한 법이었음을 밝히는데 두었다.

우선 조선 후기에 노비 수가 급격히 감소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1) 노비의 노동생산성 저하와 노비 관리비용 증가로 인해 노비 소유주의 한계편익의 감소, (2) 유통과 시장기능의 활성화로 인해 시장 최적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노비들이 임노동자로 대체된 것, (3) 농민들이 빈농화 되고 유민화 되어 저렴한 임금의 임

47) Bernhard Lang, *Monotheism and the prophetic minority* (Sheffield: The Almond Press, 1983), 108, 118-119.

노동자의 수가 풍부해진 점 등의 원인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 이러한 결과를 구약의 노비 해방법과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 상황에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1) 노비 해방법에 히브리 노비들을 품꾼같이 대하고 7년째 자유를 줄 때 넉넉한 선물을 준다는 사실이 노비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노비 관리비용을 감소시켜 노비 소유주의 한계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조치였음을 알게 되었고, (2) 당시 페니키아의 해상무역과 앗수르 국제 무역망과 연계된 이스라엘과 유다의 유통과 시장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어서 노비 가격이 실시간 시장에 반영되고 임노동자 시장도 활성화 되어 있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3) 지정학적인 위치와 자연재해 및 잦은 쿠데타로 인해 이주자와 피난민들의 수가 증가하였고, 명령경제 하에서 위험회피 수단의 부족과 세력가들의 착취로 인해 농민들이 빈곤화 되고 유민화 되어 임노동자들의 수가 풍부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구약의 노비 해방법은 단순히 이상적인 목표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당시 경제 상황 속에서 노비 소유주인 세력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차원에서라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본 연구 결과는 성경 내용이 이상적인 목표를 제시할 뿐 만 아니라 실제 실행 가능하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을 밝히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시대적인 차이가 있고 이스라엘과 유다와 조선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경제적 상황임을 발견하고 시도한 본 연구에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서 이러한 지역간 연구에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한국인의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일천한 현실 속에서 이러한 비교 연구가 하나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5. 참고문헌

- 고동환, “국가의 농민 지배방식의 변동을 통해 본 조선후기 사회성격의 해명-
윤용출, 조선 후기의 요역제와 고용노동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역사와 현실」 30 (1998), 265-280.
윤용출, 「조선후기의 요역제와 고용노동」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 이상국, “고려 정종 5년(1039) ‘賤者隨母之法’의 제정과 그 의의,” 『사림』 제34호 (2009), 79-104.
- 이영훈, “한국사에 있어서 노비제의 추이와 성격,” 『노비 농노 노예-예속민의 비교사』 (일조각, 1998).
- 이우연/ 차명수, “조선 후기 노비 가격의 구조와 수준, 1678-1889,” 『경제학연구』 제58집 제4호 (2010), 99-132.
- 이정수/ 김희호, “17-18세기 雇工의 노동성격에 대한 재해석,” 『경제사학』 제47호 (2009), 3-37.
- _____, 『조선시대 노비와 토지 소유방식』 (경북대학교출판부, 2006).
- _____, “조선후기 노비가 변동의 원인-생산성과 노비관리비용을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23호 (2008), 171-207.
- _____, “조선후기 노비매매 자료를 통해 본 노비의 사회.경제적 성격과 노비가의 변동,” 『한국민족문화』 31 (2008), 363-408.
- 전정진, “출 21장 2-11절과 신 15장 12-18절에 나타난 종의 방면 법,” 『구약논단』 35집 (2010), 54-73.
- 전형택, “노비의 저항과 해방,” 『역사비평』 34 (1996), 16-27.
- 정중호, “주전 7세기 블레셋과 유다의 광역 경제권,” 『구약논단』 41집(2011), 180-200.
- 최윤오, “18.19세기 농업고용노동의 전개와 발달,” 『한국사연구』 77 (1992), 57-88.
- Chaney, Marvin L., 우택주 외 역, 『농경사회 시각으로 바라본 성서 이스라엘 - 구약성서의 종교와 사회의 역사, 문학, 해석』 (한들출판사, 2007).
- Chirichigno, G. C., *Debt-slavery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 Coote, R., 우택주 역, 『아모스서의 형성과 신학』 (대한기독교서회, 2004).
- Elat, M., “The Monarchy and the Development of Trade in Ancient Israel,” in *Edward Lipinski ed. State and Temple Economy in the Ancient Near East*, (Louvain: Departement Oriëntalistiek, 1979).
- _____, “Trade and Commerce,” in *The Age of the Monarchies: Culture and Society*, ed. by B. Mazar (Jerusalem: Massada Press, 1979).

- Fenoaltea, S., "Slavery and Supervis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A Model," *Journal of Economic History* 44 (1984), 635-668.
- Glass, Zipporah G., "Land, slave labor and Law: Engaging ancient Israel's economy," *JSOT* 91 (2000), 27-39.
- _____, "Land, slave labor and Law: Viewing persian Yehud's economy through socio-economic modeling," Ph.D. Dissertation, Vanderbilt University, 2010.
- Hayes, J. H. and Irvine, S. A., *Isaiah: The Eighth-Century Prophet: His Times and His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87).
- Hopkins, David C., "The Dynamics of Agriculture in Monarchical Israel," in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1983 Seminar Papers*, ed. Kent Harold Richards (Chico, CA: Scholars Press, 1983).
- Katz, Hayah, "Commercial Activity in kingdoms of Judah and Israel," *Tel Aviv* vol. 31, no. 2 (2004), 268-277.
- Lang, Bernhard, *Monotheism and the prophetic minority* (Sheffield: The Almond Press, 1983).
- _____, "The social organization of peasant poverty in biblical israel," *JSOT* 24 (1982), 47-63.
- Leuchter, M., "Manumission Laws in Leviticus and Deuteronomy: The Jeremiah Connection," *JBL* 127 (2008), 635-653.
- Levinson, B. M., "The Birth of the Lemma: The Restrictive Reinterpretation of the Covenant Code's Manumission Law by the Holiness Code (Leviticus 25: 44-46)," *JBL* 124 (2005), 617-639.
- McConville, J. G., *Deuteronomy* (Leicester, Apollos, 2002).
- Milgrom, J., *Leviticus 23-27* (New York: Doubleday, 2001).
- Paul, Shalom M., *Amos: a commentary on the book of Amo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 Premnath, D. N., "Latifundialization and Isaiah 5.8-10," *JSOT* 40 (1988), 49-60.
- Rainey, Anson F., "Wine from the Royal Vineyards," *BASOR* CCXLV (1982), 57-

62.

Tsa, Daisy Yulin, "Human rights in Deuteronomy: with special focus on slave laws," Ph. D. Dissertation, Trinity International University, 2011.

Van Seters, J., "Law of Hebrew Slave: A Continuing Debate," *ZAW* 119 (2007), 169-183.

검색어

노비

노비 해방법

노비관리비용

명령경제

임노동자

Manumission Laws of the Old Testament and phenomena of slavery in the late Chosun

Joong Ho Chong, Ph.D.

Professor, Department of Christian Studies
Kei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cover that Manumission Laws (Exod. 21:2-11; Deut. 15:12-18; Lev. 25:39-46) were practicable laws. For this purpose the present writer analyzed phenomena of slavery in the late Chosun and compared them with economic situation of Israel and Juda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demonstrate similar elements between Chosun and Israel as following; (1) Marginal benefit of slave owners was decreased because the cost of maintaining slave labor exceeded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slave labor, (2) Slave labor was substituted by free labor through activation of distribution and the market functions, (3) Farmers were poor and became wandering people. So the number of low wage workers were abundant.

Especially the results of analyzing Manumission Laws show as follows;

www.kci.go.kr

(1) Because of treating Hebrew slaves as hired workers and giving gifts after six years service, marginal benefit of slave owners increased, in doing so the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slave labor exceeded the cost of maintaining slave labor.

(2) Due to the activation of the distribution system and the market function of Israel and Judah, which are related to sea trade of Phoenicia and international trade network of Assyria, the price of slave was reflected on the markets concurrently and it was easy to find wage workers.

(3) Immigrants and refugees were increased because of geopolitical location and frequent coup d'etat. Due to shortage of risk preventing devices under the system of command economy and rent capitalism, farmers were poor and became wandering people. Thus the number of low wage workers were abundant.

Therefore Manumission Laws were practicable laws to multiply the economic interests and needs of landowners rather than intended to suggest a mere ideal.

Key Words

slave

Manumission Laws

Monitoring cost

Command economy

Wage worker

- 투고일: 2012년 1월 1일
- 심사일: 2012년 1월 28일
- 게재확정일: 2012년 2월 2일